

# 훌륭한 이인자의 모범을 보여준 바락의 믿음\_ 믿음장강해(18)

히 11:32-34

## ▶ 삶 나누기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 ▼ 말씀 들어가기

하나님은 훌륭한 이인자를 통해 큰일을 이루십니다. 바락은 드보라가 사사로 있을 때 쓰임 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죄가 더욱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징계가 길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십 년 동안에 걸친 가나안의 학대를 인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워 사사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드보라와 같은 탁월한 여성 지도자를 선택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반면 바락은 그 당시 이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인자로서 철 병거를 구백 대가 가지고 있는 야빈왕과 시스라를 물리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락의 믿음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1. 하나님의 명령에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바락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여선지자를 통해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성의 위치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바락은 그 선입견과 편견을 겸손을 통해 극복한 사람입니다. 여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것을 통해 그의 겸손한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드보라에게 전쟁터에 동행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통해 그가 겸손하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겸손이란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또한 가장 배양하기 힘든 성품입니다. 인간은 교만합니다. 교만이란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한계를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설 자리를 모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주제를 압니다. 겸손은 자신의 제자리와 설 자리와 살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2. 자신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바락은 전쟁을 통하여 자신이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드보라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는 누가 영광을 받느냐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했습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적군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죽인 인물은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바락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야엘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바락은 전쟁의 승리의 영광을 야엘에게 빼앗겼지만 그는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누가 영광을 취하느냐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야빈왕과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하길 원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3. 하나님과 동역할 줄 아는 믿음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도하시는 전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락을 동역자로 삼으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드보라, 바락, 그리고 야엘입니다. 그 중에 두 사람이 여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일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협력하여 동역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과 동역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삼위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사역하십니다. 성삼위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삼위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친교의 자리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겸손하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또한 비천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삼위하나님을 본받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사역해야 합니다.

### ▼ 말씀 나누기

1. 나는 겸손한 이인자로서 나의 제자리와 설 자리와 살 자리를 잘 분별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다른 사람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일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오늘 말씀과 나눔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이인자가 되도록 적용할 수 있는 것 한가지씩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 기도하기

1. (말씀 적용) 훌륭한 이인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2. (2016년 비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셀 목장이 되도록...
3. 강준민 담임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4.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 지도록...
5.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6. 각 목원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 지도록...

↑ 찬양

### 겸손히 주를 섬길 때

W. Gladden 사 H.P. Smith 곡

한국찬송가공회 역



1.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2.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 시-키며
3. 구주의 귀한 인 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4.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 게 하-시며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 하게 하-소서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 하게 하-소서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 하게 하-소서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창피 감 억 게 하-소서 아멘!

### 주 안에 우린 하나

(원제:기대)

천장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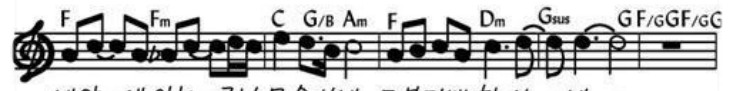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도 예수님 - 한 분 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롱격려 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우 리안-에 합께 하시니 - 형제자-매의-기쁨과 슬-픔느-끼네-



네안-에 있는-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 하시-네-



주님우렁통-해 계획하-선일- 부족한-입술로-찬양하게하-선일-



주님우렁통-해 계획하-선일-너를 통해하-선일 기대-해-